



권상로  
“물질개혁 앞서  
정신개혁 시급”



만해 스님  
“전근대적 사원경제  
한국불교 모순적결”

# “불교개혁 본질은 바른 믿음”

‘한국불교 개혁론’ 김경집 지음

“한국불교는 종단의 합법성을 박탈하여 종명마저 없어진 채로 산중에 은거, 선(禪)·교(敎)를 겸수하면서 지냈던 무종산승(無宗山僧)시대였다.”

개항 전후의 한국불교 현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러한 한국불교는 한일합방 이후 또다시 질곡에 빠진다. 이러한 때 한국불교의 비합리적인 규율이나 관습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불교의 이념을 제시한 것이 ‘개혁론’이다.

신간 <한국불교 개혁론 연구> (해인행)는 개항 이후 법맥의 흐름조차 희미해진 불교계를 혁신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개혁가 5명의 개혁론과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한 개혁운동들을 고찰하고 있다. 권상로, 만해·용성 스님 그리고 이영재, 회당 손규상 등 다섯 명이 그 대표적 인물. 지은이는 한국근대불교사를 연구하고 있는 김경집(41·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씨. 그는 먼저 한국 불교사에 있어 근대의 성격을 드러내는 개혁사상은 시대적 자각운동이라고 강조한다.



권상로·만해·용성 스님 등  
의식·제도·교육 쇄신 주장

개혁 이후 가장 먼저 개혁론을 제시한 사람은 퇴계 권 상 로. 그는 1912년 조선불교월보에 ‘조선불교 개혁론’을 연재하면서 당시 한국불

교계의 개혁을 촉구한다. 4편 15장으로 구성된 이 개혁론은 정신적 개혁과 함께 당시 불교계의 당면과제인 승단의 제도와 사원경제의 변화 그리고 자신이 추구했던 교육 개혁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어 만해 스님이 1913년 5월 <조선불교유신론>을 출간하면서 불교계의 개혁운동은 정점에 이른다. 책은 만해 스님이 착각하고자 했던 한국불교의 모순점을

크게 셋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사찰의 위치에서 오는 비효율성, 둘째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승려의 위상과 교육문제, 셋째는 사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근대적 관행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불교계의 자각을 호소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고 주장된 것이 이영재의 ‘조선불교혁신론’이다. 1922년 조선일보를 통해 발표된 이 혁신론은, 한국불교의 쇠퇴는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 데 있으며, 목숨을 아끼지 않는 바른 믿음이 한국불교의 개혁의 무기라고 단호한 어조로 천명한다.

이러한 혁신운동 가운데 용성 스님의 개혁운동은 대중적이라는 특성을 띤다. 불교라는 종교가 사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가르침을 전달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용성 스님이 대중적 개혁운동에서 가장 가치를 둔 점은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책의 진정한 메시지는 100여 년 전 제기됐던 승단의 의식·제도·교육 등에 대한 개혁론들이 오히려 지금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garnia@buddhapa.com](mailto:garnia@buddhapa.com)



이영재  
“바른 믿음이  
불교개혁의 무기”



용성 스님  
“불교대중화 교육  
진정한 혁신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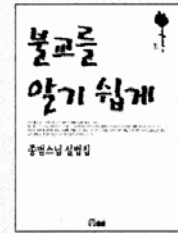
## 스테디셀러 다시읽기

종범 스님 ‘불교를 알기 쉽게’

초심자들이 입문서를 고르는 유형 네 가지. 첫째는 부처님의 생애와 의식 그리고 예절에 관련된 책을 고르는 사람, 둘째는 기초교리를 고르는 사람, 셋째는 불교의 역사와 관련된 책을 고르는 사람, 넷째는 경전과 관련된 책을 고르는 사람.

사실 시중 서점가에는 수많은 입문서들이 나와 있다. 하지만 불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책은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입문서가 스테디셀러로 읽히는 경우는 출간된 책의 종수에 비해 극히 적다. 그 많지 않은 책 가운데 하나로 종범 스님이 쓴 <불교를 알기 쉽게> (밀암)를 꼽을 수 있다. 이 책은 지난 84년 초판이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 55쇄를 거듭할 정도로 독자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다.

이 책이 이처럼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읽히는 이유 가운데



설법하듯 요점 정리  
84년 초판... 55쇄 나와

하나가 초심자들이 입문서를 고르는 네 가지 유형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장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설법식 문장이다. 사실이 책은 본래 책을 내기 위해 원고를 쓴 것이 아니다. 스님이 여러 사찰과 단체에서 설법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또 하나는 다양성과 전문성이다. 근본불교의 기초교리에 서부터 선불교 대중경전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생애 및 교단의 설립 보살행 육법공양 불교의례 반야심경을 비롯한 경전 해설 등을 총망라하여 요점만을 집대성했다는 점이다.

불자들에게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 가슴을 평화롭고 넉넉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 진정한 불자는 드물다. 불자들은 스스로 과연 부처님 가르침에 정말 귀 기울이고 눈을 밝히고 있는지 자문에 불일이다.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불자가 있다면 이 책을 권해준다. 또한 불교지식을 갖춘 불자들에게도 이 책은 한층 더 불교의 알음알이를 깊고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 초의선사가 본 한국차 우수성

‘동다송’ 소암스님 지음



초의 선사의 <동다송>과 <다신전>을 편역 강해한 <동다송> (명상)이 출간됐다.

불교텔레비전에서 <동다송>을 강의하고 있는 소암 스님이 내놓은 이 책은, 동다송과 다신전의 원문과 원저자의 역주와 번역문 그리고 지은이의 강해와 주석이 실려 있다. 또한 초의 선사가 걸어온 학문과 구도의 길, 사상과 업적을 소개하여 일반인들에게 스님의 면모를 알 수 있게 구성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그리고 옛 선조들이 가꾸어 왔던 차문화가 근래에 쇠퇴한 배경과 원인 등에 대해 살펴보는 글과 함께 우리나라 차문화의 대가라 할 수 있는 이규보, 서산대사, 정약용, 김정희 등의 차시도 함께 수록해 놓았다.

우리 나라 차의 빼어남을 노래한 <동다송>은 한국 차도의 성전으로 일컬어진다. <다신전>이 차의 제조, 음다법을 적은 것이라면, 이보다 10년 뒤에 나온 <동다송>은 한국 차의 우수성을 중국 차와 비교해 서술한 독창적인 저술이다.

초의 선사는 해거 흥현주의 부락으로 <동다송>을 지었지만, 길지 않은 문장 속에서 차에 관한 여러 의미와 생각을 담았다. 차는 무엇인가, 차는 왜 마셔야 하는가, 차를 어떻게 마셔야 되는가 등은 차 생활을 하는 다인들에게 다도의 지침으로 다가온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단순한 삶’을 다룬 서적들이 잇따라 출간되면서 출판시장에는 단순함과 느낌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난해 인생철학에 대한 집언집 형식으로 꾸며진 <단순하게 사는 법>과 <단순하게 더 단순하게>, <느리게 사는 즐거움> 등은 바쁘고 복잡한 생활에 휴식을 주는 책으로 인기가 높았다. 또한 단순하게 살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처세법에 대한 제안을 담은 책들도 있다. <단순하게 그리고 조금 느리게>는 현대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인생을 단순화하라>는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처세법을 적고 있다.

## “단순함과 느낌은 삶의 청량제”

지금 출판가엔...

이처럼 단순한 삶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금 소박하게> (민다 브린 피어스 지음, 이순주 옮김, 웅진, 값 8천5백원)와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2> (피에르 생소 지음, 김주경 옮김, 값 7천원) 등 2권이 잇따라

출간됐다.

<조금 소박하게>는 단순한 삶을 선택한 37명의 실제적인 삶을 담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로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최고의 비소설로 꼽히는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2>의 후속편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2>는 느리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지혜를 담고 있다. 지은이는 걷기, 말하기, 글쓰기 그리고 읽기를 통하여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놓친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일깨워 주고 그것들에 감사하고 느긋하게 음미할 것을 권한다.

김중근 기자

## 현대인들에 던지는 삶의 의미

‘너희들 어디를...’ 강건기 지음

<너희들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느냐> (불일)는 전북대 철학과 교수로 전주 전북불교대학, 보조 사상 연구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건기 교수의 불교칼럼 모음집이다.

책의 제목처럼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부처님의 물음을 상기시키는 글이다.

‘법륜’ 지 ‘마음에 새겨보는 경전 말씀’이란 제목으로 연재되었던 글을 모아 펴낸 이 책은 ‘나는 집을 버렸다’, ‘나를 보러거든 진리를 보아라’ 등 모두 5장을 구성되어 있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 “여명의 빛은 동방에...”

‘천년의 빛’ 김하기 소설



작가 김하기 씨가 석굴암 본존불 금강석의 전설을 모티브로 한 장편소설 <천년의 빛> (전 3권, 고도)을 내놓았다.

주인공은 전업인 파파라초 생활을 그만두고 불리비아에 미국인 수퍼모델 잉카 맥도웰의 경호인 겸 애인인 김민호(영이름 터미리). 그는 잉카와 함께 불리비아를 여행하던 중 그란 포터 축제에서 한 인도 노인으로부터 유래처럼 생긴 ‘여명의 빛’이라는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입하게 된다. 이 소설의 모든 비밀은 바로 이 ‘여명의 빛’을 중심으로 얽혀 있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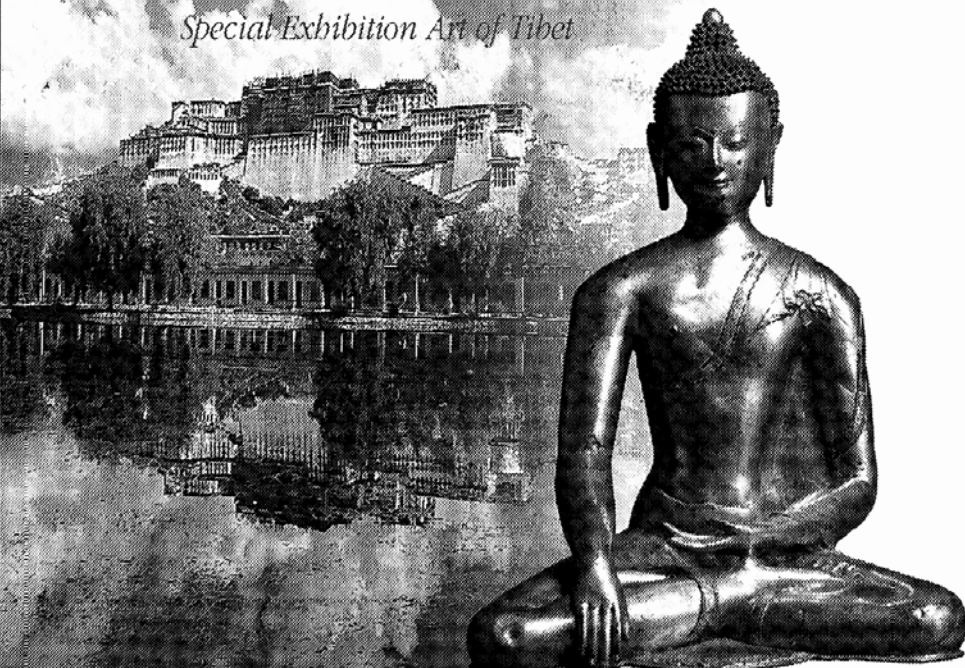
책방 역시이론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나의 행자시절	박원자	다림미디어
2	불교를 알고 싶어요	문관우	우리
3	선방일기	지희	역시야문
4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재	디자인하우스
5	도올에게 던지는 사자후	서병후	화두
6	참회 참회 기도법	김현준	효림
7	금강경 강의	혜거	부스트캠프
8	영가천도	우룡	효림
9	선의 나침반	원각	열림원
10	은세상은 한송이 꽃	무심	현암사

도서 안내: (02)737-0695

# 하늘에 맞닿은 불교왕국 티베트 특별전 개최

Special Exhibition Art of Tibet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신축개관 2주년을 기념하여 티베트 불교유물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순박한 삶과 종교가 만들어낸 신비로운 티베트미술의 아름다움을 푸르름이 더해가는 산사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개막일시: 2001년 6월 25일(음. 5. 5) 월요일 오전 11시  
전시기간: 2001년 6월 25일~9월 17일(3개월간)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문의전화: (055) 382-1001, 384-0010

특별행사로 티베트스님들의 만다라 제작시연이 7월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전시기간 동안 전화로 예약하는 사찰단체에 한하여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범 하 합장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http://www.tongdomuseum.or.kr>  
■ 6월 25일(음. 5. 5) 오전 9시 30분에는 박물관 상층석탑에 부처님 진신시리를 봉안하는 법회가 있습니다.